청소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황 정 해(한국 가족상담교육 연구소 책임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한 가정에서 청소년기 자녀와 중년기 아버지들이 존재하는 시기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시기 남성이 아버지로서 경험하는 부성경험 내용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자녀와의 관계특성과 부성경험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4명이었으며,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즉, 연령분포는 40세에서 45세 2명, 46세에서 50세 10명, 51세 1명, 58세 1명, 학력은 고졸 1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대졸이었으며, 직업은 개인업 6명, 회사원 3명, 공무원 5명이었다. 아내의 경우 4명이 취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업주부였다. 연구방법은 아버지로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관계 특성이나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관점, 상식, 주관적 경험과 의미 등 연구대상의 경험세계와 의미세계를 중시하고 과학적 일반화 보다는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문화기술적 연구법(이희봉, 1998)에 근거를 두었다. 면접과정과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인사와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주고 받은 다음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심리적 경험과 변화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자녀들이 성장하니 어떤 변화들이 생기세요?, 아버지로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나 어려움은 어떠세요?,- 그리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와 함께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와 자녀와의 친밀감은 어떠신지요? - 등을 질문내용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상호작용 특성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아버지의 여건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특성과 교육환경으로 인해 부족하며, 자녀와의 친밀감은 자녀성장과 더불어 줄어들고 특히 아들과 달리 딸과의 관계는 더 소원해져감을 보였다. 둘째,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부족이나 이상적인 아버지상의 도전으로 인한 부담감, 자녀들의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과 훈육의 어려움, 자녀와의 문화적인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심리적인 특성들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 역할에 대한 무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성장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은 자녀를 성장시킨 것에 대한 뿌듯함과 만족감,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적인 성숙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자신의 나이듦에 대한 인식이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강화됨으로써 겪는 부담감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위의 특성들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기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도전받는 아버지기’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남성의 삶에서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버지-자녀관계를 증진시키거나 중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